

# 민주화와 정치참여

李 甲 允\*

〈목 차〉	
I. 서	협
II. 민주주의와 참여정향	V. 이익집단에 대한 태도와 가
III. 민주화와 참여의 변화	입
IV. 정당에 대한 태도 및 참여경	VI. 요약 및 결론

## I. 서

민주주의가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자유와 기본권이 확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선거나 정당과 이익집단의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실제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치참여가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먼저 정치과정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됨으로써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경비가 감소하여 참여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참여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참여는 참여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뿐 아니라, 참여 경험을 통해 정치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늘어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참여정향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참여의 증가가 반드시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여의 폭발과 같은 참여의 지나친 증가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때로는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부정하기보다는 이들을 지지하고 보완하는 정향에 의한 참여가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은 6공화국 이래 폭발적인 노사분규를 비롯해 이익단체의 활동의 증가와 집단 이기주의의 등장, 경제적 침체와 3당 합당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에 따른 보수회귀, 김영삼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등 짧은 기간이지만 우여곡절이 큰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한국인의 참여 행태는 어떠한고, 또 민주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민주화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래의 글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참여 정향, 태도, 행동을 편의상 민주적 참여정향, 민주화와 참여의 변화, 정당에 대한 인지, 감정, 평가, 이익단체에 대한 태도 등의 넷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3가지 분석수준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 한국인의 수준에서 참여정향의 특성과 변화를 검토한 뒤, 이들을 사회경제적 또는 인구학적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차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또는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끝으로 참여정향, 태도, 행동의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행태의 수준이나 일관성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 Ⅱ. 민주주의와 참여정향

한국인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때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 필연성 또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기본적 합의가 존재하고 민주화를 위한 참여의지도 높다. 더불어 한국인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TV와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위치를 선택케 하였을 때 극좌 4%, 좌 15%, 중도 37%, 우 29%, 극우 15%로서 전체적 분포가 우측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그러나 민주화의 적절한 정도에 대해서는 55%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민주화를, 27%가 약간 더 민주화를 원했던 반면에 지금보다 적은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은 5%도 되지 않는다.(표 2) 또 민주화가 무질서를 초래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32%인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은 배가 넘는 68%이다.(표 3) 민주화가 실패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사람의 비율과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68%와 32%로 나누어져 있다.(표 4)

한국인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TV(90%), 신문(76%), 라디오(31%), 친구나 친척(27%), 잡지(24%), 동료(17%), 가족(16%) 등의 순서로 나타나 대중매체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표 5) 실제로 2개 이상의 통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74%나 된다.(표 6) 서구에서 볼 수

〈표 1〉 정치적 태도: 좌-우

극좌	4.4(%)
좌	14.5
중도	36.6
우	29.1
극우	15.1

〈표 2〉 민주화가 어떻게 되어야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진행되어야	55.5(%)
지금보다 약간 더 진행되어야	27.0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	12.6
지금보다 약간 더 적게 진행되어야	4.1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진행되어야	.5

〈표 3〉 민주주의는 무질서 초래로 위험

전적 찬성	7.7(%)
약간 찬성	23.9
약간 반대	28.7
전적 반대	39.6

〈표 4〉 민주화가 실패한다면 정치활동 참여

참여하겠다	25.5(%)
참여할 것이다	41.8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19.8
참여하지 않겠다	12.6

〈표 5〉 정치에 관한 소식

	아니다	그렇다
텔레비전	10.4(%)	89.6
신문	23.7	76.3
라디오	68.8	31.2
친구, 친척	73.0	27.0
잡지	76.2	23.8
직장 동료	82.8	17.2
가족	84.5	15.5

있는 것처럼 특정한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매체 전부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 것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all or nothing 현상을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데올로기적 진보성은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서울과 전남지역 주민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반면, 보수성은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충북과 강원지역 주민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참여의지와 민주화의 요구수준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서울과 전남 지역 주민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민주주의가 위협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교육수준과 연령 외에도 수입과 주관적 계층이 영향을 미치는데, 수입이 많고 상층계급인 사람들이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사용 정도와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의 이용 정도는 남자, 낮은 연령층, 서울과 경기지역 주민, 높은 교육수준과 수입, 학생과 전문직 종사자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7)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제외하고는 참여의지, 민주화 요구, 민주화 위협, 매체사용 등은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가 실패하면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정도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민주화가 위협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표 8) 이데올로기적 정향과 민주적 참여정향이 관계가 없다는 것은 보수주의자들도 진보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는 한국의 민주화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 6〉 대중매체 이용수

0개	1.1(%)
1	25.2
2	37.1
3	24.9
4	11.7

〈표 7〉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

	성	연령	지역	학력	계층	수입	직업
이데올로기 정향		***	***	**			
민주화 참여의지	**	***	**	*			
민주화 요구	*	***	***	***			**
민주화 위협	*	***		***	***	***	
매체 이용도	*	***	**	***		***	***

\* < .05 \*\* < .01 \*\*\* < .001

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의 보수성은 더이상 전통적, 권위주의적 보수주의가 아니라 근대적, 민주적 보수주의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Ⅲ. 민주화와 참여의 변화

한국인의 정치의식에서 나타난 민주화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 진행된 민주화 과정이 그러한 믿음을 확대 강화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인은 5공화국 시대와 비교할 때 정치적 관심이 증가하고, 참여도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도 진보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 이전과 비교할 때 정치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람이 22%, 약간 증가했다는 사람이 44%인 반면, 감소하였다는 사람은 7%에 지나지 않는다.(표 9) 정치적 참여의 변화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더 참여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32%인 반면에, 덜 참여하고 있다는 사람은 7%에 지나지 않는다.(표 10) 이데올로기적 정향의 변화에 있어서는 '많이 진보적으로'가 8%, '약간 진보적으로'가 39%로서 국민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진보적으로 변화한 반면 보수적으로 변화한 사람은 17%에 불과하다.(표 11)

정치적 관심의 증가는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수입이 작은 하층계급에게서

〈표 8〉 태도간 상관계수

	이데올로기적 정향	민주화 참여의지	민주화 요구	민주화 위험
민주화 참여의지	.01			
민주화 요구	-.05	.23***		
민주화 위험	.01	-.12***	-.27***	
매체 이용도	-.02	-.14***	-.12***	.11***

\* < .05 \*\* < .01 \*\*\* < .001

〈표 9〉 민주화 이전과 비교한 정치에 대한 관심

매우 많아졌다	22.0(%)
약간 많아졌다	44.4
비슷하다	26.4
약간 적어졌다	5.8
매우 적어졌다	1.1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참여의 증가도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연령이 낮고, 전남과 경남지역 주민들에게서 진보적 방향으로 변화가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변화의 방향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변화의 크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 증가와 이데올로기적 진보화는 전 하위집단에서 고루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표 12)

태도 변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관성있는 태도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증가한 사람들에게서 참여도의 증가와 이데올로기적 진보성향화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가설이 한국의 경우에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기할 것은 참여의 변화가 앞에서 본 민주적 참여정향과 큰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화에 대한 높은 지지가 민주화에 의한 태도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표 13)

〈표 10〉 5공화국 시기와 비교한 정치참여

현재 더 참여	32.6(%)
거의 비슷	60.5
과거에 더 많이 참여	6.8

〈표 11〉 민주화로 인한 정치적 성향의 변화

많이 보수적으로 변화	4.0(%)
약간 보수적으로 변화	13.0
별 변화가 없었다	34.4
약간 진보적으로 변화	39.5
많이 진보적으로 변화	7.9

〈표 12〉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

	성	연령	지역	학력	계층	수입	직업
관심 변화				***		**	
참여 증가				***			
이데올로기 변화		*	*				

\* < .05 \*\* < .01 \*\*\* < .001

## IV. 정당에 대한 태도 및 참여경험

정치참여의 수단으로서의 정당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복합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의 필요성이나 복수정당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매우 강하고 기존 정당의 인지도 또한 높지만, 정당 지지도가 매우 낮으며 당내 민주화나 정당간의 차별성의 문제 때문에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대 대의제의 모범으로서의 정당경쟁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96%나 되는 사람이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 찬성할 뿐 아니라(표 14) 정당이 하나만 있으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97%가 반대를 하고 있다.(표 15) 특히 이들 찬성과 반대의 2/3가 절대적 지지 또는 반대를 나타냄으로서 의견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인의 86%가 현재 활동중인 정당의 이름을 2개 이상, 60%가 3개 이상을 기억한다는 정당의 잦은 이합집산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인지도라 볼 수 있다.(표 16) 그러나 친근하게 느끼는 정당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36%에 지나지 않을

〈표 13〉 태도간 상관계수

	민주화 요구	관심	참여 증가
관심	.04		
참여 증가	.01	.35***	
이데올로기 변화	.09**	-.22***	-.10**

\* < .05 \*\* < .01 \*\*\* < .001

〈표 14〉 정당이 반드시 필요

전적 찬성	64.5(%)
약간 찬성	31.6
약간 반대	2.1
전적 반대	.6

〈표 15〉 정당이 하나만 있으면 더 좋아질 것

전적 찬성	65.1(%)
약간 찬성	31.9
약간 반대	2.2
전적 반대	.6

뿐 아니라 민자당과 민주당의 양대 정당 지지자는 12%와 16%에 불과하다. (표 17) 그러나 정당에 대한 낮은 지지가 민주화 과정의 결과는 아니다. 전두환 시대와 비교할 때 42%가 정당에 더 많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반면에 호감이 적어졌다는 사람은 1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표 18)

기존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조사자료에 나타난 것으로서 당내 민주화와 정당간의 차별성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72%가 정당들은 그들 지도자의 이익만을 위한다고 믿고 있으며 (표 19), 74%가 정당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표 20), 물론 정당에 대한 평가가 일방적인 것만은 아닌데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59%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21)

한국인의 정당에 대한 참여 경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중 18%가 특정 정당을 위해서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표 22) 현재 정당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5%에 지나지 않아, 기존 정당이 자랑하는 수백만 당원은 서류상의 당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23)

〈표 16〉 현재 활동 정당: 맞는 정당

0개	2.9(%)
1	11.4
2	26.4
3	34.6
4	22.8
5	2.6

〈표 17〉 친근한 정당

민자당	12.2(%)
민주당	15.9
국민당	.7
신정당	3.4
기타	4.2
없다	62.9

〈표 18〉 정당에 대한 호감: 5공화국 시기와 비교

더 많은 호감을 갖고	42.6(%)
별 변화가 없다	46.9
호감이 적어졌다	10.4



복수정당제에 대한 믿음과 정당 인지도 등은 남자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또 수입이 많고, 학생과 전문직 종사자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당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남자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기존 정당의 선호도와 여당 지지율은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크게 발견되며 민주당 지지율은 호남 지방에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정당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과 연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정당들은 지도자 이익만을 위하고, 정당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사람이 많으며, 정당을 참여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낮다.(표 24)

〈표 19〉 정당들은 그들 지도자의 이익만을 위함

전적 찬성	25.3(%)
약간 찬성	46.2
약간 반대	20.7
전적 반대	7.7

〈표 20〉 정당들 사이에 별 차이점 없다

전적 찬성	25.3(%)
약간 찬성	49.0
약간 반대	20.8
전적 반대	5.0

〈표 21〉 정당은 국민들의 정치참여 기회 제공

전적 찬성	16.7(%)
약간 찬성	42.4
약간 반대	30.9
전적 반대	9.8

〈표 22〉 특정 정당을 위해 일한 경험

있다	17.8(%)
없다	82.1

〈표 23〉 가입: 정당

가입하고 있다	5.0(%)
가입하지 않았다	94.9

정당활동에 대한 경험과 정당 가입은 농어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위집단 별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두 가지 가능한 가설은 한국인의 정치참여 활동은 참여 정향 뿐만 아니라 환경의 압력이나 사회적 역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과, 참여정향이 높은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은 집단들은 기존 정당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 때문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있다.

정당에 대한 태도는 태도간 상관관계를 볼 때 정당 경쟁에 대한 원칙이나 인지도와 기존 정당에 대한 평가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복수정당제의 원칙을 강조하고 정당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그러나 이들 태도와 정당 지지 또는 활동경험과는 큰 관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친근한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당의 당내 민주화, 정당간 차별성, 참여 기회 제공 등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가 강할 뿐 아니라 이들의 정당참가 활동이나 당원의 비율도 높다.(표 25)

〈표 24〉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

	성	연령	지역	학력	계층	수입	직업
정당필요성							
복수정당제	***		**	***		**	***
정당인지도	***		**	***		***	***
정당 지지	**	**	***	**			
정당선호 변화	*	*		***			
당내 민주화	*	*		**		**	
정당간 차별성		***		***			
참여기회 제공		**	**	**			
정당경험	**						**

\* < .05 \*\* < .01 \*\*\* < .001

〈표 25〉 태도간 상관계수

	정당필요성	복수정당제	정당 인지도	당내 민주화	정당간 차별	참여기회
복수정당제	-.26**					
정당인지도	-.12***	.20***				
당내 민주화	-.02	.01	.02			
정당간 차별성	.05	-.01	-.02	.07*		
참여기회 제공	.16***	.04	.05	.14***	-.09**	
정당활동 경험	.05	.03	.08*	-.03	-.09**	.10***

\* < .05 \*\* < .01 \*\*\* < .001

### V. 이익집단에 대한 태도와 가입

한국인의 이익집단 가입 정도는 낮지만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며 성숙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8할 이상이 더 많은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화 반대단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61%가 반대를 표시함으로써 이익집단의 자율성에 대해 강한 지지를 드러내고 있다.(표 26) 또 국민의 70%가 이익집단이나 사회단체의 활동이 민주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해를 주고 있다는 사람은 30%에 불과하다.(표 27)

이익집단의 가입 정도는 국민의 반 정도가 1개 이하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며(표 28), 가입단체별로 볼 때 국민의 59%가 가입하고 있는 취미 친목단체와 51%가 가입하고 있는 종교단체 외에는 가입율이 10%를 넘는 단체로는 이익집단(17%)과 사회봉사단체(14%), 그리고 지역개발단체(14%)가 있다.(표 29) 이러한 점에서 한국인의 이익단체의 가입율도 낮지만 가입단체의 정치적 성격도 매우 약하다 할 수 있다.

이익집단의 자율성에 대한 지지는 연령이 적은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들이 민주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 청년층의 정치의식이 세련됨을 알 수 있다. 이익집단이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수입이 높고, 학

〈표 26〉 민주화 반대 단체를 불법단체로

찬성한다	39.1(%)
반대한다	60.8

〈표 27〉 이익집단이나 사회단체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도움을 주고 있다	70.1(%)
해를 주고 있다	29.8

〈표 28〉 이익단체 가입수

0개	16.4(%)
1	33.1
2	29.1
3	13.4
4-6	8.0

생과 전문직 종사자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이익집단의 평가와 가입의 경우 가입의 정도는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수입과 직업을 기준으로 볼 때 하층계급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표 30)

태도별 상관관계에서 특기할 것은 정당에 대한 평가와 이익집단의 평가의 관계다. 일반적으로 기존 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할수록 이익집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 이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무조건적 비판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정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익집단의 평가와 가입의 정도는 아무런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표 31)

〈표 29〉 가 입

	가입하고 있다	가입하지 않고 있다
사회봉사단체	14.3(%)	85.6
소비자 보호단체	2.4	97.5
정당	5.0	94.9
환경보호단체	5.9	94.0
노동조합	8.2	91.7
이익집단	16.8	83.1
종교단체	50.8	49.1
취미 친목단체	59.7	40.2
지역개발단체	14.3	85.6

〈표 30〉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

	성	연령	지역	학력	수입	계층	직업
이익단체 자율성		***					
민주화 기여	***	**		***	**		**
가입 정도		***	***		**	.	.

\* < .05 \*\* < .01 \*\*\* < .001

〈표 31〉 태도간 상관계수

	당내 민주화	이익단체 자율성	민주화 기여
이익단체 자율성	.06*		
민주화 기여	.08**	.11**	
가입 정도	.04	.03	-.07*

\* < .05 \*\* < .01 \*\*\* < .001

## Ⅶ. 요약 및 결론

한국인의 참여 정향은 그 특성이나 변화의 방향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와 원리에 대해 매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의 민주화 과정은 관심과 참여의 증가와 이데올로기적 정향의 진보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민주화를 반대하는 단체조차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식은 높은 정치적 지식과 더불어 한국인의 성숙된 정치의식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한국인의 참여정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다른 정향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과 연령이다.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민주화나 참여에 더 적극적이지만 정당에 대해서는 불만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 남자가 여자보다, 수입이나 직업에 있어 사회적 상층계급이 하층계급보다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더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적으로 호남지역, 특히, 전남지역 주민들에게서 더 높은 참여정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 지역의 소의의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겠다.

한국인의 정치의식을 하위집단별 참여정향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특성은 동질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정당 지지, 체제 평가, 불신감, 무력감 등의 연구에서 나타났던 교육수준별, 연령별 집단 사이의 차이는 그 크기가 이번 연구에서 매우 작게 나타났다. 조사기법의 신뢰도를 인정한다면 이는 민주화과정에서 소위 민주, 반민주를 둘러싼 사회적 균열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행태의 상관관계에서 특기할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참여행태가 크게 참여원칙에 대한 태도와, 참여경험으로 나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복수정당제, 참여의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에, 정당 참여경험, 이익단체 가입 등과 같은 경험적 변수들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태도의 변화는 연쇄적인 태도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관심의 증가, 참여경험의 증가, 이데올로기 정향의 변화 등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민주적 참여정향의 결과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 지나친 낙관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이며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민주화의 장애가 되는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 의식과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의 민주화가

실패할 때 앞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인의 2/3가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여하고 싶다는 선호를 나타낸 것이지, 참여한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것이다.